

마을버스 확대 ·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주시, 21일부터 '바로운' 11대 확대 도입 · 도시확장 따른 공급부족 7개 노선에 시내버스 14대 추가 배치

전주시 농촌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 '바로운'이 11대 확대 도입되고,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예곡시터 등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한 신도시지구에서 전주 시내버스가 14대를 추가로 배정했다.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노선개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기존 20개 노선 14대 운행되던 마을버스 '바로운'이 △여의·조촌 △송천·호성 △삼천·서화 △우아 방편을 포함한 27개 노선 25대로 확대되는 것이다.

확대 도입되는 마을버스 운행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송천·호성동 방편은 △진기 △회룡 △진조리 △전당리 △하오 △신중 △한사월 △화정리 등의 마을에서 송천삼거리와 대학병원

까지 운행되고, 삼천·서서화동 방편은 △삼산 △안산 △호동 △신덕 △흑석골 등의 마을에서 남부시장까지 운행된다. 또, 우아2동의 재전마을은 모래내시장을 거쳐 대학병원까지 운행된다.

시는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바로운'을 기존 시내버스보다 운행 횟수를 늘려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간 정류장 시간표를 도입해 정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촌마을을 오가는 마을버스가 확대 도입되면서 기존 시 외곽 농촌마을을 기종점으로 하는 전주시내버스 7개 노선은 폐지될 예정이다. 시는 마을버스 확대 도입으로 남는 시내버스 14대를 7개 노선에 배치해 출퇴근시간 등 주요시간대 배차간격을 15분으로 단축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선개편으로 인해 증차되는

노선은 △74번(평화동~혁신도시~만성지구~전북대) △75번(평화동~혁신도시~만성지구~전북대) △101번(평화동~서신동~만성지구~전주대) △110번(비전대~혁신도시~만성지구~전주시청~대성동) △165번(이서회차지~혁신도시~만성지구~삼천동~동물원) △554번(삼천동~효천지구~에코시티~둔산코아루@) △559번(삼천동~효천지구~에코시티~둔산코아루 2차@)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시는 7개 노선 시내버스 증차와 더불어 기존 5개 노선의 기·종점을 변경하고, 8개 노선의 경유지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신동, 팔복동 등 전주-원주 시간선제 노선개편 이후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마을버스 도입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이용객이 적어 폐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요에 걸맞게 모의택시를 하루 2회 증회 운행하고, 지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첨두시간대 시내버스 탄력배차제도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마을버스 확대와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이용객 수요에 맞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의택시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향후 추진될 삼례·봉동·용진 방편의 전주-원주 3단계 시간선제 노선개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오는 9월 3일까지 이용석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의 '정원-꿈' 전시를 진행한다.

금암도서관서 만나는 '휴식의 정원'

9월 3일까지 이용석 원광대 교수 전시 · 강좌 운영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오는 9월 3일까지 이용석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의 '정원-꿈'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금암도서관이 지난 3월부터 도서관 이용자에게 미술품 전시와 전시와 연계된 미술 강의, 미술 북큐레이션을 월별로 선보이는 '도서관 內(내) 미술관' 사업의 여섯 번째 전시 프로그램이다.

8월에는 원광대학교 이용석 교수의 작품들이 전시되며, 오는 9월 2일에는 이 교수와 함께하는 '영혼의 미술관' 강연도 예정돼 있다. 이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알랭 드 보통의 저작 '영혼의 미술관'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예술의 일곱 가지 기능을 토대로,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예술을 감상할 것인지 △왜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좌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 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44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석 교수는 "이번 전시와 강의를 통해 각박해지는 현대인들의 삶에 휴식과 자연을 유혹하는 심리적 공간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욱기 기자

20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전주시, 주민 안전성 확보 위해 9월부터 건축물 전반적 안전상태 점검키로

전주시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총 2억9,700만 원을 투입해 관리주체가 없어 평소 안전 관리에 취약하고,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 및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점검 등 건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전주지역 442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경과연수 순으로 올해 총 95개 단지를 선정해

안전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나머지 347개 단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 점검은 전문가에서 철근 탐사기와 균열 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건축물의 전

반적인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관리주체가 없어 평소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예방 등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재난 대비 마을버스 '바로운' 운행 지도 제작

전주시설공단, 폭우·폭설 특보 발효 시 상습 침수구간 우회 운행

최근 오호 참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대비 마을버스 운행 지도를 만들었다.

공단은 폭우 시 마을버스 '바로운'이 침수 지역 등을 피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폭우지도'를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도는 바로운 20개 노선 중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4개 노선 4개 구간이 대상이다.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등이 발효됐

을 때 언더패스 또는 상습 침수구간을 피해 운행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운행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

최근 태풍 카눈으로 비상이 걸렸을 때에도 폭우지도가 활용됐다.

폭우로 운행이 제한되는 마을의 경우 마을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사전에 마을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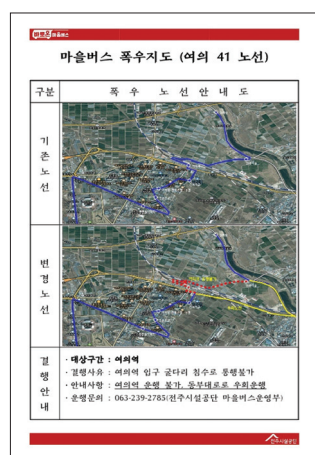
공단 홈페이지와 마을버스정보안내 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정보가 전달된다.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상습 결빙지역이나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을 피해 운행할 수 있도록 폭설지도도 제작했다.

또한, 노선 신설 또는 변경 등 상황 변화에 맞춰 폭우지도와 폭설지도도 수시로 업데이트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을버스 바로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주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진정한 발로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로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운' 폭우지도 (여의 41 노선)

전주시, 지방세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 추진

10월 말까지 체납액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 2백만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체납자의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목표로 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내 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체납자 2,472명의 명의개서에 대한 내

용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압류 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습 고질 체납자와 지속적인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정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약질·고질적인 체납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